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5)

교주고슬(膠柱鼓瑟)

거문고 줄받침을 아교로 붙여 놓고 연주한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현재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과거 여러 사람이 며칠씩 매달리던 방대한 자료 분석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번역,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영역에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생산성과 사회 구조를 바꿀 문명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변화는 정치인의 기획이나 국가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 연구자, 기업, 생산자들의 경쟁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자본과 데이터를 선점한 소수에게 성과와 부가 집중되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의 소멸이나 전환 과정에서 생계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정치의 역할은 기술 발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독점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설계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 정파적 이해와 차기 권력을 둘러싼 대립에 더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과거의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에 불들려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주고슬(膠柱鼓瑟)의 어리석음이다.

교주고슬은 슬(瑟)의 줄을 받치는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연주한다는 뜻이다. 곡조에 따라 기둥을 움직여 음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를 고정하면 변화하는 곡조에 맞출 수 없다. 곧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방식과 지식만을 고집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 말은 전국시대 조(趙)나라와 진(秦)나라가 맞붙은 장평대전(長平大戰)에서 유래한다. 진나라가 한(韓)나라 야왕(野王)을 점령해 상당군(上黨郡)과 본국의 통로를 끊자, 상당 태수 풍정(馮亭)은 진나라 복속을 거부하고 상당을 조나라에 넘겼다. 조나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나라 명장 염파(廉頗)는 초기 손실 뒤 보루를 지키며 진군을 지치게 하는 지구전을 펼쳤다. 진나라는 “두려운 장수는 염파가 아니라 조사(趙奢)의 아들 조괄(趙括)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조급해진 효성왕(孝成王)은 반간계에 넘어가 염파를 해임하려 했다. 인상여(蔣相如)는 조괄이 방법에는 밝지만 실전 경험과 변화 대

응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를 쓰는 것은 기둥을 아교로 붙여 슬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왕은 경고를 듣지 않았다. 조괄은 염파의 방어 전략을 버리고 공격했다가 진나라 명장 백기(白起)의 유인책에 걸려 퇴로와 보급로가 끊긴 채 전사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항복한 조나라 병사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고, 조나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는 상당을 받아들이는 조정의 판단과 왕의 조급함, 인사 실패가 함께 빛을 곁과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전황보다 익힌 방법을 고집한 조괄의 태도가 파국을 재촉했다는 점에서 교훈은 분명하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정치가 국가에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는 전한(前漢) 말기에서도 확인된다.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 초기 이래 확산된 철제 농기구와 우경(牛耕), 수리시설과 농업 기술은 전한 중기와 후기에 더욱 발전했다. 상업과 교통, 화폐 유통도 확대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과 지방 유력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모든 농민의 생활 안정을 뜻하지는 않았다. 세금과 부역, 재해와 고리대로 토지를 잃는 농민이 늘었고, 호족(豪族)들은 이들의 토지를 차지해 대토지를 형성했다. 농민은 소작농이나 유민이 되거나 호족에게 의탁해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조세와 요역을 비롯한 통치 기반도 약해졌다.

이에 대응하려면 토지 검병을 억제하고 조세 부담을 조정하며 지방 유력자의 성장을 통제해야 했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 호적, 토지, 유통 문제를 처리할 전문 관료가 필요했다. 그러나 성제(成帝) 재위 중후반부터 황제권이 약해지고 왕씨를 비롯한 외척(外戚)이 조정의 중심에 서면서, 국가 행정은 사적 권력 경쟁과 가문의 이해관계에 흔들렸다.

모든 유가 관료가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부 인사들이 경전과 고대 제도를 현실을 검토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한 데 있었다.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행정의 전문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흔히 전한의 멸망을 왕망(王莽)의 실정에서 찾지만, 그의 등장은 누적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한계에 이른 결과였다. 왕망은 토지 검병과 빈부 격차를 바로잡으려 왕전제(王田制), 노비 매매 금지,

화폐 개혁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기보다 고대 주(周)나라 제도를 되살리려 했고, 준비 없이 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키웠다. 여기에 변경 전쟁과 황하 범람, 기근과 유민 증가, 적미(赤眉), 녹림(綠林)의 반란까지 겹치면서 신(新)나라는 무너졌다. 현실을 살피지 않고 옛 제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려 한 태도 역시 교주고슬이었다.

조괄과 왕망의 공통점은 옛것을 따랐다는 데 있지 않다. 변화한 현실과 실무자의 판단을 외면한 채 정해놓은 명분과 방식만을 고집했다는 데 있다. 과거의 지식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이어야지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도 생산력 발전과 함께 새로운 양극화의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기업이 기술과 데이터를 독점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성격이 바뀐다면, 경제적 부가 증가해도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기술이 창출한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 과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술과 시장, 노동과 복지, 조세와 산업을 이해하는 전문 관료와 실무자의 경험이 존중되어야 한다. 선출된 정치인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 판단까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직접 공무원과 전문가를 국가 과제를 함께 해결할 동반자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취급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실무자의 의견이 정책의 타당성보다 어느 정파에 유리한가에 따라 채택되거나 묵살된다면 국정 운영의 전문성도 무너진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성급히 강요해서도 안 된다. 교주고슬의 반대는 무조건 옛것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살피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곡조에 맞추어 국가의 음을 조율하지 못하고 과거의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만을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신뢰의 줄마디 끊어질 수 있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대역무도(大逆無道)

큰 대. 거스를 역. 없을 무. 도리 도.

몹시 인륜에 거스르고 도리를 무시한 행위. 임금이나 나라에 큰 죄를 지어 도리에 크게 어긋나 있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이다. 사기(史記)에서 유래된 표현

대자대비(大慈大悲)

큰 대. 사랑 자. 슬플 비. 마음 아파할 비.

넓고 커서 끝이 없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 특히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모두를 지고(至高)의 행복으로 인도하려는 불보살의 무한한 자애와 연민에 관한 불교 교리. 대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큰 자애이고 대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큰 연민입니다.

대혹불해(大惑不解)

큰 대. 미혹할 혹. 아니 불. 풀 해.

크게 미혹되어 깨닫지 못할. 무엇에 크게 홀려 길을 잃거나 이해가 안되는 상태. 보통사람은 일상동안 진리를 헤득하지 못할. 장자(莊子) 외편 천지편에서

지금 온 세상이 미혹했다. 는 맥락으로 미혹을 깨닫는 것의 어려움과 함께 대혹불해가 사용됩니다. 또한 대혹자(大惑者)는 종신불해(終身不解)처럼 깊이 미혹된 사람은 오래도록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도 함께 사용됩니다.

도광양회(道光養晦)

감출 도. 빛 광. 기를 양. 그림 회. 감출 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의미로 재능이나 역량을 과시하기보다 입내하며 힘을 길러 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유래: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춘 고사에서 유래. 1980년대 말 중국의 덩샤오핑이 제시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도로아미타불(徒勞阿彌陀佛)

공들인 일이 한순간에 허사로 돌아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의 속담으로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徒勞阿彌陀佛)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불교에서 공부는 학문을 배우고 인간이 되는 노력을 말한다. 도로(徒勞)는 헛수고를 말한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 속설이 있다.

옛말 어느 고을로 동냥을 갔던 젊은 중이 그 마을의 예쁜 처녀를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렸다. 중은 빈민 끝에 처녀에게 청혼을 하였다. 처녀는 10년 동안 동거하되 손목도 잡지 말고 바라만 보고 지내면 그 후에는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거가 시작되어 10년이 가까워진 어느 날 밤중에 중은 욕정을 못 이기고 그만 처녀를 범하려 하였다. 처녀의 손을 잡으니 깜짝 놀란 처녀는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이리하여 10년 도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이 속담이 생겨났다고 한다.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34차 7월 격월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영건)는 제34차 7월 격월회의를 7월 24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 127(평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면옥’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등 세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친목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권오익 대종회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사무국장 등 9명이다. 권영준 동정공파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등 3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권기원 사무국장의 진행에 따라 권영건 친목회장은 인사말에서 “어제 23일 대서(大署)에 더운 날씨로 염소 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동안 기온이 40도 넘어 가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 간 사람이 1만 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님들도 더위에



건강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회원들은 정답을 나누면서 갈비탕과 냉면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안동권씨회관 대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권기수 안동종친회 수석부회장은 건물 수리 현황을 보고했다. 수리비는 4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각 회장 임원들에게 1차적으로 찬조금을 협조 받고 공사 진척에 따라 족친들에게 찬조금이나 성금을 협조 받을 예정이라

고 밝혔다.

회관 수리가 완료되면 지하와 1층은 임대물, 2층 회의실, 3층 안동종친회 사무실과 대종회 사무실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권씨 회관은 40여 년 전 지은 것으로 현재 건물이 낡고 오래돼 수리가 불가피하며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한다.

오는 9월 25일 9월 격월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나 추석과 겹치는 바람에 11월 27일 금요일 오후로 미루기로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年 8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6.27. ~ 7.29. 총 납부자 17명 총 57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기덕(경북 안동)	권영성(강원 강릉)	권오익(경북 안동)	권인택(경기 수원)	권태윤(대구 서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봉(경북 경주)	권오갑(경기 양주)	권오인(충북 충주)	권종규(경북 안동)		30,000	30,000	30,000		
권도현(경남 창원)	권오규(경북 안동)	권오현(서울 구로)	권종수(대수 수성)		30,000	30,000	30,000		
권세현(경북 상주)	권오용(경북 안동)	권유기(경남 밀양)	권종우(서울 중랑)		30,000	30,000	90,000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安東權氏 別將公派 派譜(족보)編纂 公告

별장공파 파보(족보) 편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문중에서는 수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4월 31일까지(1년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종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2001년 파보 작성 이후 출생, 결혼, 사망 등 변동사항
이전 파보 작성 시 누락 수정사항 등
- 홍보협조: 별장공파 전 종원님 파보 작성 신청

♣연락처 : 파종회(안동) 054-857-9080 Fax 054-857-9079
♣편집위원 : 권기원 (010-3520-0674)

안동권씨 별장공파종회장 권기수